‘선을 넘는 녀석들’, 김영옥이 안방극장 울렸다

광복 · 6.25 전쟁 등 역사의 순간 담담히 풀어놔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의 특별 손님으로 깜짝 등장한 배우 김영옥이 안방극장을 제대로 울렸다.

지난 23일 토요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된 MBC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연출 정윤정) 2회에서는 전현무, 설민석, 문근영, 유병재, 다니엘 린데만이 강화도와 제주도의 ‘선’을 찾는 여정이 펼쳐졌다.

24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 2회는 수도권 가구 기준 1부가 5.1%, 2부가 6.7%로, 첫 방송보다 시청률이 상승해 시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또한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에서는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으로 1부가 2.6%, 2부가 2.8%를 기록해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은 지난주 첫 방송에서 한반도 근현대사의 아픔이 있는 강화도의 선을 넘으며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이번 주엔 강화도의 시간이 멈춘 섬이자 북한과 맞닿은 강화 교동도를 찾아 분단의 슬픔을 전했다. 또한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픈 역사가 있는 제주도의 첫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먼저 전현무-설민석-유병재-다니엘 린데만은 북한 연백 출신 실향민들이 고향을 떠올리며 황해도 연백시장과 비슷하게 일군 대룡 시장이 소개됐다. 꿀이 넘쳐흐르는 호떡, 설탕과 케첩을 뿌린 옛날 핫도그를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살아온 길이 곧 근현대사인 배우 김영옥이 교동도에 깜짝 손님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실향민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주 찾는다는 다방에 자리 잡았다. 1937년생으로 현재 활동하는 여배우 중 최고령인 김영옥은 일제강점기, 광복, 6.25 전쟁, 이산가족 상봉까지의 자신이 경험한 굵직한 역사의 순간을 담담하게 풀어놨다.

설민석은 김영옥에게 “살아있는 근현대사 교과서”라며 그녀의 이야기에 흠뻑 빠진 모습을 보여 눈길을 모았다. 그녀는 6.25 전쟁 당시 21살, 18살 오빠가 각각 국군과 인민군이 된 황망한 가족사를 털어놨다. 이에 전현무는 “완전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같네요”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한 가족의 기가 막힌 생이별에 설민석은 할 말을 잃고 눈물을 머금었다.

김영옥은 2000년 11월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에 있던 큰 오빠를 다시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며 “아버지, 어머니는 큰 오빠를 못 보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다”면서 가슴 뜨거웠던 재회의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녀는 “다시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라며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을 염원해 감동을 안겼다.

김영옥의 설명으로 접하는 한반도의 비극은 한순간도 시선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몰입도를 자랑했다. 전현무는 “이렇게 생생하게 처음 듣거든요”라며 한반도 역사의 비극을 실감했다.

감동뿐 아니라 김영옥의 예능감도 빛났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멤버들을 꼼짝 못 하게 만드는가 하면 ‘할미넴’이라는 별명까지 갖게 된 ‘욕 연기’에 대한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웃음을 안겨줬다.

또한 ‘역사를 잘 아는 누나’ 문근영과 유병재의 강화도 보충수업 두 번째 이야기도 공개됐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연산군 유배지였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유병재 대신에 문근영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녀는 운전 중 급정거 상황이 되자 유병재 앞으로 손을 내밀어 막아주는 특급 매너를 보여줘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유병재는 문근영의 배려에 특유의 수줍은 ‘황니미소’를 지어 폭소를 유발했다.

또 이미 알고 있는 역사인데도 ‘설명요정’ 유병재를 위해 “어쩌다 연산군이 유배를 당했을까요?”라고 질문을 하며 배려했다. 문근영은 유병재의 설명을 사슴 눈망울로 경청하며 폭풍 리액션을 보여줬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이어가 유병재에게 칭찬을 받기도.

문근영의 활약은 다음 여정지인 제주도에서도 이어졌다. 문근영의 합류로 완전체가 된 멤버들은 ‘근영앓이’를 하며 첫 여정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문근영이 제주도 여정을 앞두고 인터넷 역사 강의를 직접 보고 빼곡히 공부한 비밀노트가 공개돼 눈길을 모았다. 이를 본 멤버들은 수험생을 방불케 하는 그녀의 열정에 감탄을 쏟아냈다.

문근영은 직접 운전을 해 멤버들을 에스코트했고, 제주도 방언 퀴즈와 설화 이야기를 풀어 놓으며 흥미진진한 여행을 이끌었다. 이들은 제주도의 건국 신화가 있는 삼성혈과 중세 한국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제주 방언의 역사, 과거 유배지였던 제주도의 모습 등 아름다운 풍경 속에 우리가 잘 몰랐던 제주도의 풍성한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전현무와 유병재의 역사 지식 배틀은 문근영과 다니엘 린데만의 합세로 더욱 치열해져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식 설명권(?) 분쟁’까지 벌어져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방송 마지막에는 다음 제주도 여정을 함께 할 특급 게스트의 등장을 알려 궁금증을 자아냈다. 모든 멤버들을 기립하게 만든 특급 게스트와 함께 제주도의 역사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무엇보다도 예고에서 문근영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공개돼 다음 주 방송에 대한 기대를 더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알고 시야를 넓힌다는 점에서 ‘선녀들’이번 시즌 너무 좋음”, “역사의 산증인.. 보면서 계속 마음 아팠다”, “저 중 하나만 겪어도 힘들텐데ㅠㅠ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비극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선들이 생기게 되기까지의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발로 터는 탐사예능으로, 전현무-설민석-문근영-유병재-다니엘 린데만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한반도 편’은 토요일 오후 6시 25분에 방송된다.

‘열혈사제’, 기상천외 공조수사 ‘최고시청률 20.1%’

SBS ‘열혈사제’가 MBC 새 주말 드라마의 야심찬 공세 속에서도 최고시청률 20.1%를 기록, ‘이틀 연속 최고시청률 20%를 넘는 대기록’을 세우며, SBS 첫 금토드라마의 성공적인 안정을 깔끔하게 확정 지었다. 또한 2049 시청률은 지난 방송보다 0.6% 포인트나 상승한 7.5%를 기록, 시청률에 이어 화제성까지 싹쓸이했다.

23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극본 박재범/연출 이명우/제작 삼화네트웍스) 7회는 수도권 시청률 14.8%, 전국 시청률 13.0%, 8회는 수도권 시청률 18.0%, 전국 시청률 15.7%로, 타사 드라마의 첫 시작에도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수도권 시청자 수는 지난 방송보다 훨씬 증가한 1,973,000명을 기록, 2백만을 향한 진격을 시작했다. (닐슨코리아 기준)

최고 시청률 20.1%를 기록한 장면은 다혈질 사제 김해일(김남길 분)과 바보 형사 구대영(김성균 분)이 “소고기 특수부위 오케이 콜”이라며 기상천외한 공조 수사 내기를 외치는 장면이다. 김남길과 김성균 두 배우의 티격태격 케미와 엉뚱한 내기 조건이 시청자들을 빵 터지게 만들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카르텔 일당들을 한 방 먹이는 사제 김해일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해일은 교황의 도움으로 이영준(정동환 분) 신부 살인 사건의 재수사를 성사시켰다. 교황에 대통령까지 소환한 김해일의 글로벌한 작전은 상상초월 전개를 이끌었다. 뜻밖의 사이다를 안긴 김해일의 작전이 안방극장을 들었다 놨다 했다.

김해일은 이영준 신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가 생전에 카르텔에 맞서 홀로 싸우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불량 급식을 먹고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의 소식, 그리고 비리로 얼룩진 구청과 줄줄이 엮인 카르텔 일당의 악행들이 발견된 것이다. 김해일은 그들의 죄를 밝히고자 노력했던 이영준 신부의 뜻을 이어, 카르텔과 계속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김해일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이때 김해일은 번뜩 교황님에게 이르라고 약 올리던 박경선(이하늬 분)의 말을 떠올렸다. 모두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김해일은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러한 김해일의 간절함은 통했다. 교황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대통령이 이영준 신부의 죽음을 재조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에 황철범(고준 분)을 비롯한 카르텔 일당은 일동 당황했다. 박경선 역시 “와우 대박. 글로벌하게 엿을 먹게 됐다”며 놀라워했다. 위로부터 내려진 명에 카르텔 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바로 김해일과 공조 수사를 할 파트너로 “가장 능력 없고, 가장 한심하고, 가장 하자 투성이인 사람”인 구대영(김성균 분) 형사를 선정한 것. 경찰서장은 구대영에게 김해일과 같이 수사하는 척하며, 방해를 하라고 명령했다.

김해일은 구대영이 파트너라는 것을 알게 되자 펄쩍 뛰었다. “재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거다. 어디서 이런 형사를”이라고 무시하며, 담당 형사 교체를 요구했다. 구대영은 자신이 숨은 에이스라고 주장하며, 승부욕을 불태웠다. 시작부터 티격태격 케미를 발산하는 사제 김해일과 형사 구대영의 모습은 공조인지 방해인지 모를 이들의 좌충우돌 수사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열혈사제’는 형사보다 더 형사 같은 신부 김해일과 신부보다 더 자비로운 형사 구대영이 만나 공조수사를 시작하는 이야기. 여기에 김해일의 수사를 막으려는 욕망 검사 박경선의 방해가 예고돼 쫄깃한 전개를 예감하게 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김해일과 구대영의 공조 수사는 어떻게 펼쳐질지, 또 구담구 카르텔을 저격하는 김해일의 분노의 응징은 어떻게 그려질지, 벌써부터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는 매주 금, 토요일 밤 10시 방송된다.

방탄소년단, 2월 아이돌 브랜드평판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이돌그룹 100대 브랜드 2019년 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가 2위, 신인 걸그룹 ITZY(있지)가 3위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아이돌그룹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19년 1월 22일부터 2019년 2월 23일까지 100개 아이돌그룹 브랜드 빅데이터 155,774,903개를 추출하여 아이돌그룹 100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측정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분석하였다.

지난 2018년 12월 아이돌그룹 100대 브랜드 빅데이터 218,947,961개와 비교하면 28.85% 줄어들었다.

2019년 2월 아이돌그룹 100대 브랜드평판 30위 순위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있지, 트와이스, 엑소, 아이즈원, 세븐틴, 레드벨벳, 뉴이스트, 여자친구, 러블리즈, 소녀시대, 샤이니, 우주소녀, 아스트로, CLC, (여자)아이들, 비투비, 마마무, SF9, 위너, 체리블렛, NCT, 드림캐처, 에이핑크, 베리베리, 하이라이트, 몬스타엑스, 비스트, 모모랜드 순으로 분석됐다.

1위, 방탄소년단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브랜드는 참여지수 4,458,608 미디어지수 4,800,859 소통지수 4,869,193 커뮤니티지수 3,520,958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7,649,617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12월 브랜드평판지수 36,930,336와 비교하면 52.219% 하락했다.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음력 1월 21일)

▶쥐띠 ㄱ, ㅁ, ㅅ, ㅈ 성씨 아랫사람을 밀어주고 아껴줘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무 다할 수 있다. 받으려고만 말고 베풀어라. 2, 4, 6, 10월생 토끼를 다 잡으려다 에너지만 소비하는 격. 하숙, 식품업, 제지업 종사자는 풀리는 운.

▶소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억척스러움이 필요할 때. 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해결함이 좋겠다. ㅂ, ㅅ, ㅇ 성씨 주위사람 마음아프게 하는 것을 알라. 더욱 노력해 빛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호랑이띠 하는 일 쉽게 풀리는 운이지만 점차 힘겨워질 수 있다. ㄱ, ㅁ, ㅅ, ㅈ 성씨는 자신감있게 극복해야 발전할 수 있다. 2, 5, 7월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베풀면 부유한 사람에게 큰 것을 베푸는 것보다 더 값짐을 알 것.

▶토끼띠 ㄱ, ㅇ, ㅈ 성씨는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지런한 성격으로 바꿔 활기를 찾으라. 뛰어난 재주도 있고 영리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니 정상에 서기가 늦어짐을 알라. 3, 5, 8, 10월생 억지로 하는 일은 금물.

▶용띠 사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3, 4, 9, 12월생 투자하는 것은 좋으나 동업은 처음에만 좋고 끝에 가서 울상으로 변할 수. ㄱ, ㅂ, ㅅ 성씨는 변동하려는 것 진행하면 좋을 듯.

▶뱀띠 2, 8, 9월생은 애정에는 한 길만 택함이 좋겠다. 둘을 놓고 저울질하다 삼각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ㄱ, ㅂ, ㅊ 성씨는 이웃이나 친구간에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의견대립 염려된다.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화해함이 좋겠다.

▶말띠 ㄱ, ㅅ, ㅇ 성씨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는 법.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가지고 논하다가 덫에 걸릴 수 있음을 알 것. 3, 7, 12월생 부모 형제가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는가. 실속있고 안정성 있는 직업을 가질 것.

▶양띠 2, 6, 9월생 애정에 이정표를 확인하고 갈 곳을 찾아 한길로만 가라. 분수를 지키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면 주위의 찬사도 받고 귀인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소, 토끼, 용띠와 더욱 협력하는 게 좋겠다. 북, 서쪽이 길.

▶원숭이띠 ㄴ, ㅈ, ㅎ 성씨 때가 때인 만큼 유혹이 많겠다. 자기 것이 아니면 사물이든 사람이든 유혹은 뿌리쳐라. 키 큰 자가 손해 줄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재능과 재치를 발휘해 적응시킨다면 편안함을 가져올 수. 녹색이 행운.

▶닭띠 무분별한 애정 문제로 가족 전체가 불행해짐을 알라.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경거망동한다면 미래가 어둡다. ㅂ, ㅅ, ㅇ 성씨는 혼자서 하는 일이 힘들어도 오기로 전진할 때 정상에 설 수 있음을 알 것.

▶개띠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자신이 노력으로 만드는 것. ㄱ, ㅁ, ㅇ 성씨는 초조하고 비관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꿈이 좋겠다. 2, 8, 12월생 이곳 저곳 쫓기다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격.

▶돼지띠 힘든 고비를 넘겨 금전은 따르는 편이다. 애정은 답답하니 짜증나는구나. 5, 7, 9월생 소홀함 없이 살아온 날들을 위해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밝은 날을 위해 퇴보하는 마음은 금물. 소, 양, 개띠에게 조언을 구하라.